

후반기 출발 '굿~'



LAD저스 류현진이 22일(한국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원정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피츠버그전 7이닝 2실점 5K

득점·수비 고른 지원...시즌 11승 달성

‘괴물’ 왼손 투수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후반기 첫 승 사냥을 낙관하긴 쉽지 않았다.

22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류현진의 올 시즌 19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는 디고든과 함께 올해 다저스 타선을 이끄는 야시엘 푸이그가 이틀째 결장했고, 헨리 라미레스마저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다저스가 최근 8경기에서 뽑아낸 점수는 모두 16점에 불과했다. 이 기간 팀타율은 0.213로 2할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한 경기에서 3점을 얻기도 어려운 게 요즘 다저스 타선인데, 류현진은 상위 타선에 자리해야 할 두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홈 7연승 도전에 나선 피츠버그를 상대해야 했다.

류현진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우려와는 달랐다. 다저스 타선은 장단 12안타를 몰아치며 4회까지 5점을 뽑아내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공교롭게도 푸이그와 라미레스를 대신해 투입된 저스틴 터너(5타수 2안타 2타점)와 칼 크로포드(5타수 1안타)가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2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터너는 2-0으로 앞선 4회초 2사 2, 3루에서 3루수 강습 타구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6번 좌익수로 나선 크로포드는 안타는 1개에 불과했지만 7회말 1사에서 좌중간 쪽으로 향하는 조르디 머서의 까다로운 타구를 몸을 낮춰 안정적으로 잡아냈다.

이어진 7회말 2사 1루에서는 중견수 방면으로 흐르는 트레비스 스나이더의 타구를 터너가 건져낸 뒤 2루수 고든에게 감각적으로 토스해 주자를 잡아냈다.

류현진은 전반기 10승을 달성한 지난 1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6이닝 동안 사구 하나 없이 2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잘 막고도 타선이 1점을 얻는 데 그친 탓에 벤치에서 조조하게 결과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저스가 안정된 수비 속에 3~4회에 얻은 5점을 잘 지켜 5-2로 승리하면서 류현진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11승 고지를 밟았다. 7이닝을 5피안타 1볼넷 2실점으로 틀어막은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44에서 3.39로 약간 떨어뜨렸다

/연합뉴스

KIA V10 주역 김상훈-유동훈 유니폼 벗는다

고질적 부상에 은퇴 결정

후배들 훈련 도우며 새출발

“2009년 우승, 최고의 순간”

2009년 우승의 주역들이 나란히 그라운드를 떠난다.

KIA 타이거즈 ‘우승 배터리’ 김상훈(37)과 유동훈(37)이 22일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해태에서 시작해 KIA까지 이어졌던 이들의 ‘타이거즈 역사’도 마무리 됐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9년 호랑이 유니폼을 입은 유동훈은 11시즌 동안 465경기에 등판, 36승 59세이브 39홀드 평균자책점 3.92의 성적을 남겼다. 1996년 광주일고 시절 2차 우선 지명을 받았던 김상훈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15시즌 동안 1388경기에서 타율 0.242, 67홈런, 458타점, 376득점을 기록했다. 2009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9년에는 철벽 마무리와 든든한 안방마님으로 팀의 10번째 우승을 합작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기도 했다.

타이거즈 선수로서의 마침표를 찍은 김상훈은 “5월 은퇴를 생각했다. 후배들의 부상과 팀 상황이 있어서 더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성우도 있고 내가 떠나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팀에서 뛰겠다는 제의도 있었지만 야구를 시작했고, 꿈을 이룬 곳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고 새출발을 하고 싶었다”며 “시간을 버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싶지는 않았다. 팀에도 미안한 일이고 빨리 지도자로서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시즌 중반 은퇴를 결정했다. 그동안의 응원과 성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선의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올 시즌 즐겁게 캠프를 치렀던 만큼 아쉬움은 남는다.

김상훈은 “더 좋은 모습으로 떠나지 못해 아쉽다. 여기저기 몸이 좋지 않아 기량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 경기하는 순간만큼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몸을 사릴 수 없었다”며



“올 시즌에는 사실상 주전에서 밀리면서 후배들과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캠프를 치렀는데 어느 해보다 즐거웠다. 혼자 방에서 방망이도 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के줄을 받고 훈련을 했다. 더 잘하지 못하고 가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유동훈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캠프 중반 찾아온 무릎 부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은퇴를 결정했다.

유동훈은 “준비를 잘했는데 이렇다할 역할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미안하고 아쉽다. 재활을 하면서 한 때 페이스가 좋아서 공을 던지기도 했는데 다시 상태가 악화됐다. 큰 수술이 될 것 같았다. 자신이 없었다. 요즘은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또 “처음에는 야구를 보는 게 쉽지 않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훨씬 편하다. 아내도 내 뜻을 이해해주고, 가족들도 이제는 가슴 졸이면서 야구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한다. 많은 사랑을 받았다. 타이거즈 선수로 살았던 자부심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역시 2009년. 우승을 해봤기에 이들의 타이거즈 선수였다는 것에 후회는 없다.

김상훈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타이거즈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다. 우승도 해봤고, 주장도 했다. 하필 한국시리즈 7차전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지만 주장을 하면서 우승을 했기에 가슴이

뿌듯하다. 잊지 못할 순간이다”고 말했다.

유동훈도 “처음 맞본 우승의 기쁨이었다. 학창시절에 준우승만 했다. 아시아야구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지만 그때는 내가 주축이 아니었다. 2009년에는 내가 팀에 역할을 했기에 최고의 영예와 기쁨을 누렸다.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선수 타이틀을 내려놓은 김상훈은 22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배팅볼 투수로 변신했다. 당분간 홈경기에서 후배들의 훈련을 돕는 등 새출발을 준비할 계획이다. 유동훈은 휴식을 취한 뒤 구체적인 진로를 정할 예정이다. 은퇴식은 추후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긋지긋 무안타 탈출

추신수 19경기만에 멀티히트...팀도 연패 탈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가 무안타 행진을 마감하고 멀티 히트에 득점, 타점까지 올렸다.

추신수는 22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우익수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기록했다. 추신수는 지난달 29일 미네소타 트윈스전 이후 19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또 이날 두 번째 타석에서 친 올 시즌 15호 2루타는 23타수 만에 나온 안타였다. 추신수는 최근 선발 출전한 다섯 경기에서 삼진 11개를 당하면서 안타는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뉴욕 선발투수 쉐인 그린을 맞아 1회초 5구 승부 끝에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초 지긋지긋한 연속 무안타에서 벗어났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선 추신수는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 2볼에서 5구째에 높게 형성된 미팅한 공이 들어오자 이를 그대로 견어올려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만들어냈다. 추신수는 3번 타자 애드리안 벨트레의 타석 때 홈을 밟으며 득점에도 성공했다. 6회에는 타점까지 기록했다. 추신수는 2사 1·2루에서 바뀐 투수 맷 손턴의 3구를 통타, 2루 주자 지오바니 소토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시즌 타율은 0.236에서 0.239로 상승했다. 텍사스는 이날 추신수의 활약에 힘입어 4-2 역전승을 거두고 2연패에서 탈출했다.

/연합뉴스